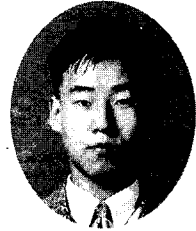


레미콘산업의 현안 문제점과 향후 방향



김장수*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의 특성

우리나라 레미콘산업은 1965년 7월 대한양회공업(주) 서빙고공장(현 쌍용양회공업(주))이 처음으로 신설 가동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의 국가 기간산업 발전은 물론 국민주택 건설 및 산업 시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레미콘의 수요량은 점차 늘어났으며, 그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레미콘업체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레미콘 생산 시설의 현대화, 신기술 개발, 고품질 관리 등 레미콘의 품질 관리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산업규격과 해외 규격 기준에 상이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지금에 KS F4009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레미콘은 건축 구조 형태에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듯이 그 수요는 상당하다. 레미콘은 다른 건설 자재와는 다르게 레미콘 제조 후 90분 내에 타설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 타설 완료 후 양생이 되어야만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되고, 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레미콘 공장에 사용 일

자 및 시간, 수량 등을 지정 받아 주문 생산이 이루어지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설 자재이다. 또한 산업 특성상 90분 이내 공급 가능한 범위를 판매망으로 하는 지역형 산업, 건설산업 동향에 따른 기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성 산업, 건설 발주가 대부분 인구 집중된 도심에서 발생되므로 도심형 산업 등으로 그 특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특성으로 레미콘은 도심 근교에 위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는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레미콘산업은 90분이라는 제한을 갖는 지역형, 계절성, 도심형 산업이다"

레미콘산업의 발달 과정

지금까지 레미콘의 역사는 35년으로 인간 삶의 주기에 비추어 볼 때 장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표현할

표 1. 연도별 레미콘산업 성장 추이(전국)

연 도	업체 수	공장 수	생산 능력 (천m ³ /년)	출하 실적(m ³)
1967	1	1	180	
1970	1	2	540	226,067
1975	1	7	2,020	988,464
1980	14	37	10,790	5,877,893
1985	79	148	50,746	22,983,363
1990	260	363	124,042	58,415,255
1995	518	653	264,572	114,731,097
1999	545	708	323,716	95,974,214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기획과

수 있겠다.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레미콘산업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연도별 레미콘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 1967년 1개 업체 1개 공장에서 연간 18만 m³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해인 1999년에는 545개 업체 708개 공장에서 3억 2,371만 6,000 m³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급성장을 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980년도부터 건설 경기 붐을 타고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레미콘산업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레미콘산업의 꾸준한 성장은 지난 1997년 1억 3,319만 6,735 m³의 최대 출하량을 기록하였고, 1997년 말 IMF 체제 이후 건설 경기는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비단 레미콘산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산업만이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레미콘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레미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불황기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점이겠지만 먼저 레미콘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들고자 한다.

첫째로 그동안 레미콘은 급성장하면서 레미콘업체 및 공장의 신·증설이 너무 많아 현재 포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과잉 생산 설비를 갖추었다는 말이다. 시장 경제에서 공급 과잉 상태면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수요 과잉 상태면 가격은 오른다는 것은 상식이다.

즉, 레미콘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 가격의 하락, 품질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레미콘 생산 시설은 급증한 데 반해 레미콘 수요량은 IMF를 기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로 인한 수요량 확보를 위한 기업간의 경쟁이 바로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덤핑 판매나 할인 판매는 곧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최종 소비자의 안위를 해치게 될 우려

도 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수요 공급자간의 과도한 과당 경쟁을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 시설의 신·증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신규 면허의 허가 기준을 강화시켜 기존 업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 경제의 위축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를 위하여 과잉 생산 설비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는 측면이라야 한다.

둘째로 레미콘업체의 신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미콘산업이 도입 초기부터 발전해 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레미콘의 기술 개발은 담보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경험 축적 부족과 원자재 품질 저하로 레미콘 제품의 고급화와 품질 향상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동안 레미

콘산업이 급속한 성장으로 경영상의 이윤을 크게 창출하면서도 레미콘의 품질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은 뒷전이었던 점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레미콘의 품질에 있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소비자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려 나아가야 할 것이다.

레미콘업체들의 영세성과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이 미약한 상태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재 일본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각 업체간 공동시험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생산 제품인 "Ready Mixed Concrete"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30년만 지나면 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건물의 안전도가 낮아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야단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원인이 바로 레미콘의 품질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한 데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경우처럼은 안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 100년을 바라본다는 자긍심으로 학계와 업계간,

"공급 과잉으로 과당 경쟁 초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힘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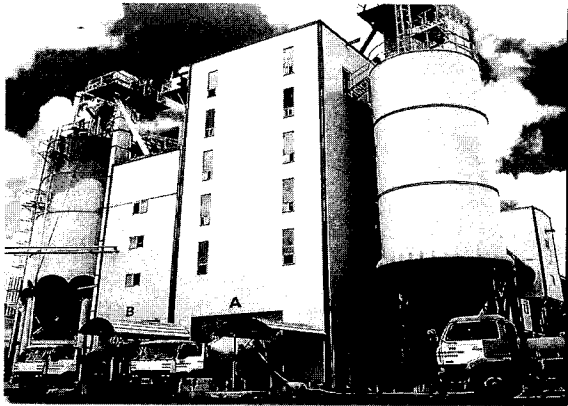
각 기업체간 연구 개발을 확대하여 현장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레미콘업계의 추진 방향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레미콘은 우리 주거 생활 및 사회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레미콘업계에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레미콘업계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위한 경영자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레미콘 제조업 역시 3D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반 국민들이 콘크리트를 속어로 '공구리'라고 부르는 것들을 때 필자 역시 레미콘 관련 계통의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레미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미지 제고가 필요할 때라 생각하며, 레미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레미콘업계는 건설업계와 공생 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레미콘업체는 양질의 레미콘을 공급한다는 약속과 건설사들은 레미콘의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건설사와 레미콘업체간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면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는 늘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건설사들이 '제값주고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자'는 캠페인을 펼치듯 레미콘업체들도 양질의 품질

생산에 필요한 '제값주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여야 건설사들의 제값받기가 타당성을 가질 것이라 판단된다. 건설사들은 제값을 받고 여타 건설 자재업체들에게는 제값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레미콘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이익 추구하고 함께 국가 건설산업에 이바지한다는 자세로 상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 진정한 레미콘산업 및 국가 발전은 더욱 더 빛을 발하리라 확신한다. □

※ 본고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